

산업 간 융합 관점에서 본 핀테크의 시사점

박대현*

핀테크는 금융권의 규제완화와 기술발전을 계기로 점차 세계적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본 보고서는 태동 단계인 핀테크의 개념을 정리하고, 해외 핀테크 사례 소개를 통해 핀테크가 어떠한 형태로 국내 무대에 진입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핀테크의 활성화가 향후 타 분야와 기술 간 융합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산업 융합의 시대에 기존 산업 간의 융합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I. 서론

II. 핀테크 개념

1. 정의
2. 분야별 특징

III. 산업 동향

1. 국외 동향
 - 1) 영국
 - 2) 미국
 - 3) 중국
2. 국내 동향

IV. 융합 관점에서 본 핀테크의 시사점

V. 결론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책기획팀 선임연구원(dhpark@kisa.or.kr)

I. 서론

ICT와 금융의 융합산업인 핀테크가 각광받고 있다. 인터넷의 등장 이후 온라인-오프라인 간 산업 융합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음에도 유독 핀테크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보수성이 강한 금융과 개방성이 특징인 IT서비스 산업 간 융합이 흔치 않은 일이며, 핀테크로 인해 장기간 정체되어 왔던 금융산업이 근본적 변화에 이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 핀테크가 활성화한 지 4~5년을 넘어 산업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최근 각종 금융규제가 완화되면서 '15년 이후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태동기에 있는 핀테크의 개념을 정리하고, 핀테크 산업의 분류와 특징을 우선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핀테크가 이미 활성화된 외국 사례를 통해 핀테크 산업의 성장 조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념 정리과정을 거쳐 핀테크를 비롯한 ICT와 기존 산업 간 융합 현상에 대해 정리하고, 핀테크의 활성화로 인해 본격화될 산업 융합의 미래를 조망해 보고자 한다.

II. 핀테크 개념

1. 정의

핀테크(FINTECH)는 FINANCIAL(금융)과 TECHNIQUE(기술)의 합성어로, 금융과 ICT의 결합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산업 및 서비스분야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가 급속히 발전했는데, 이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한 기존 금융권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더불어 ICT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기존 금융이 담당하던 서비스를 새로운 플랫폼이 대체하게 된 점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¹ 현재 결제, 송금분야의 융합이 가장 활발하며, 일부 국가는 인터넷 은행, 자금 투자 등 금융 본연의

1 Chris Brummer and Daniel Gorfine, "Fintech : Building a 21st Century Regulator's Toolkit", Milken Institute, October 2014, pp 2.

업무까지 확대 중이다.

2. 분야별 특징

핀테크 산업은 크게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²

<표 1> 핀테크 산업별 분류

분야	대표 서비스	특징
송금 분야 - 전자 화폐 (Digital and Electric Currencies)	비트코인 M-Pesa 트랜스퍼와이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으로 거래 가능한 가상 화폐, 비트코인 등 신규로 등장한 화폐와 M-Pesa 등 기존 화폐의 결제 수단을 보조하는 화폐를 통칭 • 전자 화폐 외 개인, 기업 간 송금 서비스 등도 포함 가능 • 비트코인 사용자 2500만 명 이상('14. 10 기준), M-pesa의 거래량이 케냐 GDP의 43%('14. 1 기준)에 이를 만큼 전자 화폐의 실물 경제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결제 분야 - 전자 결제 시스템 (Digital Payment Systems)	페이팔 알리페이 스퀘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시 사용자가 미리 등록한 카드나 계좌 정보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전자 결제 서비스 • 핀테크 사업자와 은행, 카드사 등 기존 금융업체가 제휴한 서비스 형태가 많으며, NFC, 전자지갑 등 사용자에게 친숙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출시 중 • 세계 전자결제 거래량은 '17년까지 약 7천 억\$ (77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투자 분야 - 금융 투자 플랫폼 (Online Finance and Investment Platforms)	엔젤리스트 렌딩 클럽 쿠오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 창업자금 지원 등 투자 관련 금융을 서비스하는 온라인 플랫폼 • 금융 투자 플랫폼은 기존 금융 대비 낮은 수수료, 신속한 이체, 사용자 친화적 UI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중. 특히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신용도를 분석하여, 기존 금융 대비 높은 변제율과 낮은 사고율이 특징 • 온라인 플랫폼은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기존 금융의 투자를 받지 못한 기업의 자금처로 인식되며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활성화의 성장 원동력으로 자리매김

위와 같이 핀테크 산업은 화폐, 결제, 투자 등 기존 금융이 담당하던 서비스와 IT 기술이 결합하여 기존 금융이 시도하지 못한 신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뢰도와 수익에 타격을 입은 기존 금융 업계 또한 핀테크를 적극 육성하여 변화된 소비자의 기호를 맞추고 수익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Chris Brummer and Daniel Gorfine, 앞의 책, pp. 2~4.

Ⅲ. 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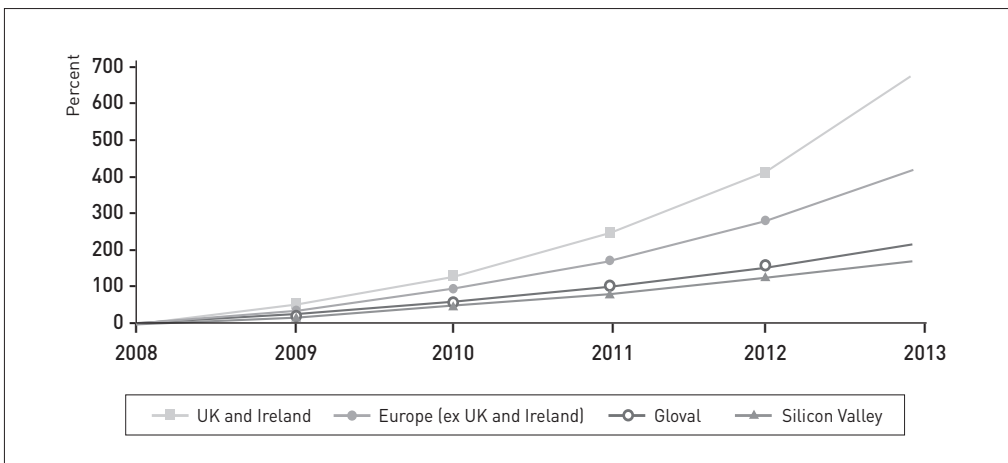
1. 국외 동향

1) 영국

영국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계와 IT산업계의 적극적인 융합을 통해 현재 핀테크 발전 속도 및 투자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영국 내 핀테크 산업 종사자는 13만 5천여 명으로 추산되며, 런던 내에만 1,800여 핀테크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³ 또한 핀테크를 통한 거래 규모는 '08년 이후 매년 74% 성장해 왔으며(세계 성장률 27%), 핀테크 투자 규모는 '08년 이후 5년 간 총 7억 8,100만\$(2,915억 원)에 이른다.⁴

영국의 핀테크 발달 배경에는 20세기 이후 건재한 금융 산업이 자리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 회사의 본사 다수가 런던 등 영국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범위하게 발달한 금융망이 전 세계의 핀테크 자본을 영국으로 유입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다.

최근 영국 내 핀테크 산업은 거대 금융사의 지원을 배경으로 성장 중인데, 대표적으로 올해 6월 시작된 금융 그룹 바클레이즈(Barclays)의 Barclays Accelerator와 8월 마스터카드



출처 : Accenture, CB insights

[그림 1] 세계 핀테크 산업의 성장률

3 Julian Skan et al, "The Boom in Global Fintech Investment", Accenture, March 2014, pp.5.

4 이기승, "국내외 핀테크(Fintech) 동향과 전망",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August 4, 2014, pp.1.

(MasterCard), 로이드 बैं킹(Lloyds Banking)과 라보뱅크(Rabobank의 제휴로 시작된 pan-European accelerator Startup Bootcamp를 들 수 있다.⁵ 반면 금융 기업의 지원으로 성장한 핀테크 기업이 기존 금융 기업의 사업 영역과 충돌하는 양상도 빚어지면서, 영국 내 핀테크 시장은 거래량이나 이슈 측면에서 타 국가를 능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클레이즈의 최고 디지털 책임자(Chief Design and Digital Officer)인 Derek White는 최근 인터뷰에서 “핀테크는 타 산업에 비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분야”이며, “핀테크 지원을 위해 매년 300여 업체를 초청하여 Barclays Innovation Day를 개최하고, 런던에 핀테크 스타트업 전문 스튜디오를 설립해 핀테크를 지속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⁶

영국의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으로는 트랜스퍼와이즈(TransferWise)를 들 수 있다. '11년 Kristo Käärmann과 Taavet Hinrikus가 설립하였으며 소액 송금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연간 200%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표적 벤처펀드인 세쿼이아 캐피탈(Sequoia Capital)로부터 50만\$의 투자금을 지원받으며 10억\$(1조 원) 규모의 기업가치가 있는 것으로



출처 : Barclays

[그림 2] Barclays Fintech Accelerator의 멘토 초청 강연 모습

5 Steve O'Hear, "Startupbootcamp Launches Barcelona-Based IoT Accelerator", TechCrunch, August 18, 2014. <http://techcrunch.com/2014/08/18/startupbootcamp-iot/>

6 Tom Lytton-Dickie, "The future of banking with Barclays Pingit", Hottopics, September 9, 2014. <http://www.hottopics.ht/stories/how-to/the-future-of-banking-with-barclays-pingit/>

로 평가받고 있다.⁷

2) 미국

미국의 핀테크 산업은 영국에 비해 발전이 더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원인으로 기술 중심지인 실리콘 밸리와 금융 중심지인 월스트리트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주장도 있으나,⁸ 실리콘 밸리 산업계를 중심으로 발전한 미국의 핀테크를 영국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최근 들어 실리콘 밸리와 뉴욕은 각 지역의 강점을 바탕으로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3년 기준, 세계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금 중 83 퍼센트가 미국에 집중되었고, '14년 1사분기에 10억\$(1조 원) 규모의 투자금이 109건의 계약 체결에 집중되며 투자액 규모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⁹ 또한 미국은 SNS와 플랫폼 등 앞선 기술과 페이팔(Paypal)로 대표되는 결제 시스템 운용의 경험을 토대로 시장 파괴력이 높은 서비스를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핀테크 서비스로 애플페이(Applepay)를 들 수 있다. 애플에서 출시한 지급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는 근거리 무선통신 방식인 NFC(Near Field Communication)와 지문 인식을 결합하여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결제 시 단 한번 생성되는 보안 코드를 사용하므로 타 결제수단에 비해 보안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애플페이의 결제 시장 장악을 우려한 타겟(Target)등 대형 유통사에서 애플페이 결제를 거부하여, 미국 내 유통시장 보급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타트업의 결제 서비스로는 벤모(Venmo)가 대표적이다. 소액송금서비스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벤모는 '12년 브레인트리(Braintree)에 2,600만\$(290억 원)¹⁰에 인수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특히 지인 간 네트워크에 기반한 소액 송금의 개념은 다음

7 Sally Davies, "TransferWise fundraising could value London start-up at nearly \$1bn", Financial Times, November 10, 2014. <http://www.ft.com/intl/cms/s/0/e9dab1b6-68d9-11e4-af00-00144feabdc0.html#axzz3J6g2ojXp>

8 Anna Irrera and Sarah Krouse, "Race to be the big wheel in fintech", FinancialNews, October 29, 2014 <http://www.efinancialnews.com/story/2014-10-29/fintech-news-2-london-vs-us?ea9c8a2de0ee111045601ab04d673622>

9 Robert Gach, Maria Gotsch, "The Rise of Fintech: New York's Opportunity for Tech Leadership", Accenture, June 2014, pp. 4.

10 Bloomberg Businessweek, "Cash Is for Losers!" <http://www.businessweek.com/articles/2014-11-20/mobile-payment-startup-venmo-is-killing-cash>



출처 : Computerworld, Applepay process 재구성

[그림 3] 애플페이 결제 프로세스

카카오의 뱅크월렛카카오에서 적용한 서비스 컨셉으로,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 소액 송금 분야의 확장이 지속되는 점에서 국내 송금 서비스의 발전을 가늠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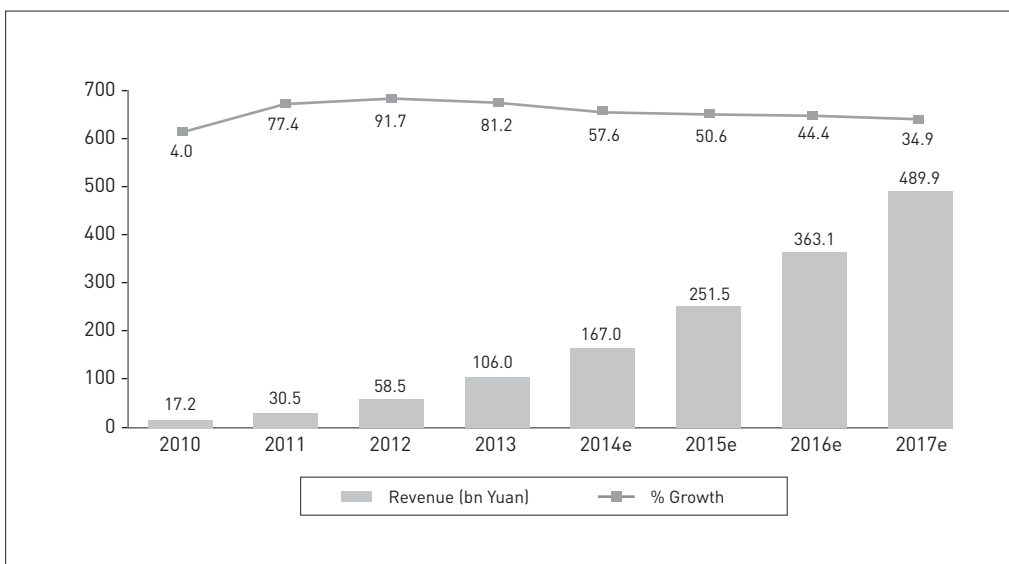
3) 중국

중국의 모바일 인터넷 인구는 5억 명으로, 전체 인터넷 이용 인구 중 81%가 모바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¹¹ 또한 모바일 인터넷의 총 수익은 1,060억 위안(19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2%의 성장세를 기록하였다.¹² 한편 중국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금융 시범 사업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정부 차원의 핀테크 육성 정책도 점차 확대 추세에 있다. 시장성 증가와 우호적 정부 정책을 배경으로 중국의 ICT 플랫폼 사업자들은 점차 핀테크 사업자로 진화해 가고 있다.

중국 핀테크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업체는 알리바바이다. 지난 9월 19일 미국 뉴욕증권거

11 CNNIC, "Statistical Report on Internet Development in China", Chin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 January 2014, pp. 18~23.

12 iResearch, "2014 China Mobile Internet Report", iResearch Consulting Group, July 22, 2014, pp. 11.



출처 : iResearch, "2014 China Mobile Internet Report"

[그림 4] 중국 모바일 시장, 연도별 수익 및 성장률 그래프

래소에 상장해 시가총액 242조 원을 기록¹³한 알리바바는 1억 8,800만 명에 달하는 모바일 사용자를 기반으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온라인 결제 서비스 알리페이는 PC와 모바일을 합친 연간 거래액이 5조 4,000억 위안(888조 원)으로 중국 온라인 결제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다.¹⁴ 알리바바는 MMF 등 개인 투자 부문으로도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2. 국내 동향

국내의 핀테크 산업은 구체적인 수익률 평가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 국내 핀테크 시작이 늦춰진 원인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것이 금융 분야의 과도한 진입장벽과 규제이다.¹⁵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금융

13 연합뉴스, "시총 242조 알리바바 상장에 마윈 회장 '대박'...손정의·야후도", September 20, 2014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09/20/0318000000AKR20140920003151091.HTML>

14 중앙시사매거진, "E-PAYMENT | 알리페이 한국 진출 전자결제 시장 충격", August 23, 2014
<http://magazine.joins.com/forbes/view/302878> 알리바바는 MMF 등 개인 투자 부문으로도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15 디지털데일리, "시험무대 오른 핀테크...금융당국, 규제와 육성책 사이에서 고민", November 14, 2014,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24523>

관련 법률은 금융업 진입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여신 감독 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금융업 허가가 가능했다. 엄격한 금융 규제는 대기업의 금융 진출에 따른 경제 불균형을 우려한 금산분리 원칙에 따른 것이었으나, 이로 인해 핀테크 등 금융과 타 산업 간의 융합이 정체된 것도 사실이다. 다행히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월부터 결제 시 사전인증 절차를 사후확인으로 전환¹⁶하여 결제 절차를 간편화하고, Active-X 사용으로 브라 우저 간 결제 범용성이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Active-X를 완전 추방하기로 계획하고 있다.¹⁷

국내에서는 지난 9월 다음카카오가 LG CNS의 결제 시스템인 엠페이(M-Pay)를 기반으로 카카오페이를 출시하였다.¹⁸ 사용자는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에 신용카드 정보와 결제 비밀번호를 미리 입력해 두고, 결제 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간편하게 결제를 마칠 수 있다. 한편 지난 11월 서비스가 시작된뱅크월렛카카오는 다음카카오와 16개 은행 간 제휴를 통해 최대 50만 원까지 입금한 후 가입자 간 송금을 가능케 한 서비스이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플랫폼의 높은 모바일 점유율을 바탕으로 15년 이후 본격적인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 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다음카카오 외에 전통적 플랫폼 강자인 네이버는 메신저 서비스인 라인과 밴드에 기반한 결제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며,¹⁹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디바이스 기반 사업자도 각각 자사의 결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²⁰

한편 국내 ICT기업과 금융기관 등 관계자는 지난 11월 핀테크포럼을 발족²¹하여 산업계의 핀테크 지원을 본격화하였다. 플랫폼 기업, 핀테크 벤처 기업, 금융기관 관계자 등 40여 기업의 대표자로 구성된 본 포럼의 설립으로 각 산업 간의 핀테크 융합을 유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향후 금융감독원,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16 금융감독원,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및 Active-X 해결방안”, September 23, 2014, p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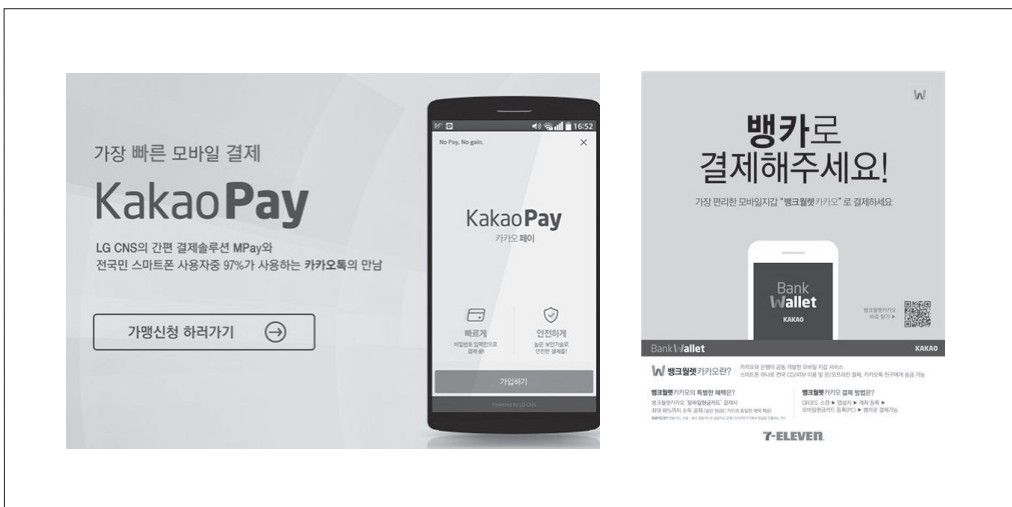
17 금융감독원, 앞의 보도자료, pp.5.

18 연합뉴스, “이젠 카톡으로 결제...‘카카오페이’ 출시”, September 5, 2014,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09/05/0301000000AKR20140905127300017.HTML>

19 아시아경제, “네이버, 모바일 결제시스템 ‘라인페이’ 일본에서 첫 선”, October 9, 2014,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00920165465158>

20 뉴스웨이, “떠오르는 핀테크 시장, 주도권을 잡아라”, November 19, 2014, <http://www.newsway.co.kr/view.php?tp=1&ud=2014111906323321057>

21 벤처스퀘어, “한국핀테크포럼 발족, 핀테크 혁명에 동참한다”, November 28, 2014 <http://www.venturesquare.net/561090>



출처 :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그림 5] 뱅크월렛카카오, 카카오페이 프로모션 및 서비스 화면

정부 기관의 핀테크 활성화 정책도 점차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IV. 융합 관점에서 본 핀테크의 시사점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핀테크 산업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점차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핀테크의 등장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산업 간 융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산업 간 융합은 개별 산업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ICT의 기술적 편리성만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핀테크의 경우 금융 산업의 본질을 좌우하는 서비스를 ICT가 직접 다루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산업 융합과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융 산업은 사용자 접점이 많은 대표적인 서비스 상품으로, 광범위한 네트워크와 다양한 소비자 중심 서비스를 통해 외부 위협이 적은 안정적인 서비스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발달하고 있는 핀테크 ICT는 소비자 접점의 최 일선에서 기민하게 움직여 왔던 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금융 산업의 기반인 소비자를 단 기간 내에 잠식해 가고 있다. 이른바 ‘코어 बैं킹(Core Banking)’이라 불리는 기존 금융권의 서비스는 계좌 이체, 대출 등 은행

서비스를 보안이 확보된 금융 통합 전산망을 통해 거래한다는 개념이었으나, 핀테크 서비스가 기존 송금, 결제, 대출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코어 बैं킹의 개념도 점차 약화되는 추세이다.²² 또한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기존 은행 서비스를 신뢰하지 않는 소비자의 등장이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은행 서비스의 강점인 신뢰성과 자산 안정성은 계속된 경기 침체를 계기로 장점이 퇴색하는 추세이고, 소비자는 보다 높은 이율과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한 핀테크 기업으로 금융 계좌를 이전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²³ 이는 ‘금융은 안전한 금융 전문 기관을 통해서 한다’는 기존 고정관념이 바뀌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으며, 금융권을 벗어난 금융 거래의 보편화로 경제적, 사회적인 변동이 커질 가능성도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 및 소비자 인식을 계기로 최근 은행권에서는 금융의 본질에 대한 재정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오프라인 지점을 기반으로 한 은행 서비스는 사라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²⁴

해외 시장에서 유독 금융 그룹의 핀테크 육성이 활발한 데는 앞서 제기한 시장 변화에 대한 금융 그룹의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영국 금융 그룹인 로이드 बैं킹(Lloyds Banking) 그룹은 지난 10월 전체 근로자의 10%인 9,000여 명을 해고하고 600여 지점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소비자들이 지점 거래를 중단하고 온라인 거래에 집중하는 현상이 그 원인으로 제기되었다.²⁵

해외 핀테크 시장은 금융 그룹 주도의 핀테크 육성 및 M&A를 통한 기술력 흡수와 스타트업 기업 주도의 금융 제휴를 통한 사업 영역 확장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금융 기업과 ICT 기업 간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의 중심에는 보다 편리한 서비스에 초점을 두는 소비자의 선택이 자리 잡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내 금융 시장이 해외에 비해 폐쇄적이었던 원인으로 정부의 강력한 금산분리 규제를 지

22 Daniel Latimore, "COMPONENTIZATION AND EXPANDING THE DEFINITION OF 'CORE'", Fintech insight 2014, Metia, January 20, 2014, pp. 3.

23 Colin Donald, "Will technology eat our banks?", heraldscotland, November 9, 2014, <http://www.heraldscotland.com/business/company-news/will-technology-eat-our-banks.25808981>

24 Wayne Busch, "Banking 2020", Accenture, 2013, pp. 4.

25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Lloyds to Axe 9,000 Jobs and Shut Down Some Branches", October 23, 2014 <http://www.ibtimes.co.uk/lloyds-axe-9000-jobs-shut-down-some-branches-1471361>

적할 수 있다. 한국 금융의 저성장 원인으로 과도한 금산분리 정책과 이에 따른 규제 중심 정책이 지적되고 있으며,²⁶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금융 관련 법률은 금융업 진출 대상 기업에 대해 엄격한 조건 충족을 요구하여 기존 금융 기업을 제외한 사업자가 금융에 진출하는 것은 사실상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핀테크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핀테크 도입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금융 관련 규제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카카오 그룹 등 ICT 플랫폼을 중심으로 결제 및 송금 분야의 핀테크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PG(결제대행) 사업자 허가가 있는 LG CNS의 엠페이를 바탕으로 한 만큼 직접적인 결제 시장 진출로 보기 힘들 수도 있지만,²⁷ 향후 금융 당국의 규제 완화 시 ICT기업의 단독 시장 진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규제 완화와 수익성 검증 여부에 따라 독자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난립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민간 주도의 핀테크 포럼이 발족함에 따라 기업 간 서비스 융합이 점차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핀테크 보급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보안 취약성 이슈는 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최근 핀테크의 취약성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안 전략을 제시하는 분석이 제시되는 추세이며,²⁸ 특히 IT 기업의 보안 방식으로서 기존의 사전 보안이 아닌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 등 사후 보안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금융통합망을 통한 금융 거래에서 개별 플랫폼을 통한 거래로 금융의 개념이 변화하는 만큼, 금융 보안도 정적인 게이트 키퍼에서 벗어나 이상 거래 유무를 탐지하는 동적 보안으로 진화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상호 이익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결합을 시도해 왔으나, 핀테크의 경

26 조세일보, "한국 금융 위기...신제윤 "불신과 규제가 문제"", October 14, 2014
<http://www.joselbo.com/news/htmls/2014/10/20141014235912.html>

27 서울경제, "[인터뷰] 류영준 다음카카오 페이먼트사업셀장", November 12, 2014,
economy.hankooki.com/lpage/it/201411/e20141112174720117720.htm

28 임형진, 유재필 외, "전자지급결제 동향 및 시사점", 금융보안연구원, October 20, 2014, pp. 8.

우 금융과 기술의 직접 결합이라는 점에서 타 융합 분야에 비해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 핀테크가 활성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많았으나, 산업계와 정부의 노력으로 15년 이후 핀테크 산업의 본격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금융권의 규제 중심 정책 개선과 ICT 분야의 유연성 강화가 분야 간 융합을 위한 물리적 선행 조건이라면, 분야 간 융합 현상을 인정하고 금융계와 ICT 산업계가 힘을 합쳐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고민하고 출시하는 것이 융합을 위한 실질적 선행 조건이 될 것이다. 또한 금융 거래의 핵심인 보안성 확보를 기존 금융권이 아닌 핀테크 업계에서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점도 초기 핀테크 정착의 주요 지표로 작용할 것이다.

ICT와 타 분야 간 융합은 점차 규모와 파급력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성공적인 융합을 위해서는 융합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과 더불어, 현재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각 산업별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성을 인지하고 과감하게 분야 간 융합을 추진하는 것이 핀테크 육성과 산업 융합을 달성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서울경제 (2014). “[인터뷰] 류영준 다음카카오 페이먼트사업셀장”
- 연합뉴스 (2014). “시총 242조 알리바바 상장에 마윈회장 ‘대박’...손정의 · 야후도”
- 이기승 (2014). “국내의 핀테크(Fintech) 동향과 전망”,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조세일보 (2014). “한국 금융 위기...신제운 “불신과 규제가 문제””
- 중앙시사매거진 (2014). “E-PAYMENT | 알리페이 한국 진출 전자결제 시장 충격”
- Anna Irrera and Sarah Krouse (2014). “Race to be the big wheel in fintech”, FinancialNews.
- Chris Brummer and Daniel Gorfine (2014). “Fintech : Building a 21st Century Regulators Toolkit”, Milken Institute.
- CNNIC (2014). “Statistical Report on Internet Development in China”, Chin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
- Colin Donald (2014). “Will technology eat our banks?”, heraldscotland.
- Daniel Latimore (2014). “COMPONENTIZATION AND EXPANDING THE DEFINITION OF ‘CORE’”,

Fintech insight 2014, Metia.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2014). “Lloyds to Axe 9,000 Jobs and Shut Down Some Branches”

iResearch (2014). “2014 China Mobile Internet Report”, iResearch Consulting Group.

Julian Skan et al (2014). “The Boom in Global Fintech Investment”, Accenture.

Robert Gach, Maria Gotsch (2014). “The Rise of Fintech; New York’s Opportunity for Tech Leadership”, Accenture.

Sally Davies (2014). “TransferWise fundraising could value London start-up at nearly \$1bn”, Financial Times.

Steve O’Hear (2014). “Startupbootcamp Launches Barcelona-Based IoT Accelerator”, TechCrunch.

Tom Lytton-Dickie (2014). “The future of banking with Barclays Pingit”, Hottopics.

Wayne Busch (2013). “Banking 2020”, Accenture.